

『난중일기』로 본 임진왜란

北鳥万次*

번역:김문자**

목 차

I. 들어가기

II. 水軍을 지탱한 職人集團

III. 僞倭로 변장한 亂民

1. 耳匠
2. 石手
3. 弓匠
4. 箭匠
5. 冶匠
6. 全羅左水營의 職人們

IV. 「亂中日記」에서 보이는 降倭에 대해서

1. 降倭에 관한 記述
2. 「亂中日記」의 降倭記述에서 말할 수 있는 것
3. 「降倭」라 불려진 倭人

V. 「亂中日記」原本의 날짜착오와 명량해전에 대해서

VI. 마치며

I. 들어가기

전쟁은 그것을 일으킨 당사자보다도, 그것과는 관계없는 많은

* 일본 공립여대 교수

** 상명대학교 사학과 강사

사람들이 휘말려 드는 것이다. 1910년부터 35년간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역의 식민지 지배는 가장 두드러진 예이다.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비참한 상황을 체험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祖父나 祖母로부터 듣거나 또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았다고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 400년전, 豊臣秀吉이 아시아의 황제에 군림할 야망을 품고서 일으킨 壬辰倭亂도, 秀吉의 야망과는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속으로 휘말리게 했다. 捕虜로서 일본에 연행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럽에까지 전매된 사람도 있다. 또한 朝鮮人이면서 일본측에 가담한 사람도 있다. 그들은 順倭라고 불렸다. 순왜 중에서는 일본측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원래 朝鮮國家에 원한을 품고 일본군의 침략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順倭가 된 자도 있다. 그리고 일본군 가운데서도 조선 측에 投降한 자도 있다. 그들은 降倭라고 불리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仁陣에 의한 兵糧不足과 勝戰분위기로 降倭가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秀吉의 海外派兵에 疑問을 품고, 적극적으로 조선 측에 투항한 자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壬辰倭亂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秀吉 및 조선에 出陣했던 諸人名의 움직임, 조선왕조 및 官人層, 朝鮮官軍과 저명한 義兵, 그리고 조선을 구원한 明軍등에 초점이 놓여져 있었다. 이점은 일본측의 사료가 秀吉 및 諸人名에 관한 기록이나 문서이었으며, 조선 및 명측의 사료가 『朝鮮王朝實錄』『明實錄』『明史』『兩朝平壤錄』등의 기록·편찬물이었다고 하는 제약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 연구의 주류는 자연히 군사·외교문제가 중심이 됐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임진왜란에 휩싸인 수많은 민중에 대해 눈을 돌린 연구도 나왔다. 그 대

표적인 연구가 内藤雋輔氏의 『文祿·慶長役에 있어서 被擄人の研究』(1976년 3월 東京大學出版會)이다. 이 연구의 의미는 膨大한 論證을 근거로 해서 임진왜란을 파악한 새로운 시점을 제시했던 점에 있다.

아시다시피 李舜臣의 『亂中日記』는 임진왜란 전후 7년간에 있었던 李舜臣 주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며, 李舜臣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기 위한 메모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는 『朝鮮王朝實錄』에 나오지 않는 일들도 알 수가 있다. 조선 수군의 현장 모습과 왜란에 대처하기 위한 생각, 수군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해서 『亂中日記』에서 본 壬辰倭亂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水軍을 지탱한 職人集團

1. 耳匠

耳匠은, 木手라고도 하며, 船大工을 시작으로 목수 일에 관여한 職人이며, 『亂中日記』를 보면 토목공사도 행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1

**『亂中日記』:癸巳六月二十二乙巳,晴,戰船始坐塊,耳匠二百四十名,軍役內營七十二名,防踏三十五名,蛇渡二十五名,鹿島十五名,鉢浦十二名,呂島十五名,順天十名,興陽·寶城各十名,防踏則初送十五名,軍官色吏論罪(이하 생략)

○二十三日丙午,晴,早朝點付耳匠等則無一名干云,新船木板畢造,

**사례1을 통해 안 사실은, ①全羅左水營에 240여명이나 되는 다수의 耳匠(船大工)이 있었다는 점. ②船大工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그 船材를 운반하는 다수의 잡역인부가 좌수영 지배하의 각 진영에서 동원되었다는 점.

*사례2

**『亂中日記』: 甲午正月二十四癸卯, 晴日暖, 朝山役事, 耳匠四十一名, 宋德馯領去, (이하 생략)

**사례2를 통해서 안 것은, 耳匠이 墓를 만드는 토목공사에도 관여했으며, 그것을 통솔한 것이 李舜臣의 部將 宋德馯이었다는 점.

*사례3

**『亂中日記』: 乙未十一月二十七日乙未, 晴金應謙以二年木斫來事, 耳匠五名率去

**사례3을 통해서 안 것은, 耳匠은 材木의 채벌에도 관여했으며, 이것도 李舜臣의 軍官이 통솔하였다는 점.

*사례4

**『亂中日記』: 丙申二月初六日癸卯, 陰曉耳匠十名, 送于巨濟, 造船事敎之, (이하 생략)

**사례4를 통해서 안 것은, 全羅左水營에 있는 耳匠이 거제도로 나가서 造船作業을 했는데, 이점은 全羅左水營의 耳匠은 거제도 이외의 각 진영 船倉에도 작업하러 나갔다고 생각되어짐.

*사례5

**『亂中日記』: 丙申八月十九日甲寅, 或陰或晴, (中略)昏耳匠玉只壓材重傷,

*사례6

**「亂中日記」: 丁酉十月三十日丁亥, 晴而東風, 多有雨態, (中略) 早使黃得中, 率耳匠往于島北峯底, 造家材木斫來

**사례6을 통해서 안 것은, 李舜臣의 軍官인 黃得中은 船舶과 銃筒用 鐵材의 운반 등에도 담당하였으며 (『亂中日記』丙申2月18·19日), 대개 鐵材·木材를 조달하는 임무에 관여했던 자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 配下에는 耳匠등 職人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2. 石手

石手는 石工을 가르킴.

*사례1

**「亂中日記」: 壬辰正月十六日丁丑, 晴。(中略) 城底土兵朴夢世, 以石手往先生院鎖石浮出處,

**사례1을 통해서 石工은 全羅左水營周邊의 토착 兵卒에 인솔되어 採石하러 나갔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토착병을 지배하여 석공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사례2

**「亂中日記」: 壬辰二月五日丙午, 大風雨, (中略) 石手等以新築浦坑多致頽落決罪, 使之更築,

**사례2를 통해서 석공은 원래 矢壕工事(돌 쌓는 것)를 본업으로 행해왔는데 사례1에서 본것처럼 採石에서 돌 쌓는 일 까지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弓匠

弓匠은 弓矢人·弓人, 또는 造弓匠이라고도 불려졌으며, 활을 만드는 職人이다.

*사례1

**「亂中日記」:壬辰三月初六日丙寅,晴,朝食後出坐,軍器點閱,弓甲·兜鍪·箭兒·環刀則多破毀之物,不成樣者甚多,色吏·弓匠·監考等論罪,

*사례2

**「亂中日記」:癸巳二月十三日戊戌,雨雨如注,戊時雨止,(中略)弓箭匠大邦·下只等還歸,

*사례3

**「亂中日記」:丙申七月七日壬申,晴,(中略)夕,弓匠智伊及春卜,夕歸營,
**사례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李舜臣은 이미 閑山島로 진영을 옮겼으며, 弓匠은 활 만드는 일 때문에 全羅左水營에서 한산도로 나갔고, 일이 끝났기 때문에 全羅左水營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耳匠이 巨濟島로 나갔던 것과 같은 문제이다.

*사례4

**「亂中日記」:丁酉五月八日戊戌,晴(中略)弓匠李智歸去,

**사례4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례3과 같다.

*사례5

**「亂中日記」:丁酉八月十六日甲戌,晴(中略)弓人李智及太貴生口來見,

**사례5에서 이 해 7월22일, 李舜臣은 三道水軍統制使로 再任되었고, 수군재건을 꾀하였으며, 그때 弓匠이 인사하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箭匠

箭匠이라는 것은 궁의 화살을 만드는 職人이다.

*사례1

**『亂中日記』: 甲午八月初四日己酉, 朝酒雨晚晴,(中略)箭匠朴玉來捉竹,

5. 治匠

治匠이라는 것은 鍛冶職을 가르킴.

*사례1

**『亂中日記』: 丁酉十月廿三日庚辰, 晴,(中略)治匠許莫同往于羅州, 初更未使奴招之, 則腹痛云,

**사례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鍛冶職도 全羅左水營에 있으며, 羅州등의 지역으로 일하러 가는 경우도 있다.

6. 全羅左水營의 職人們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耳匠 · 石手 · 弓匠 · 箭匠 · 治匠등의 사례는, 『亂中日記』에 보이는 職人에 관한 기술에 의한 것이지만, 1631년 (仁祖9)에 수록된 「湖左水營誌」에 의하면, 좌수영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職人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이 시점에 있어서의 좌수영 상태는 李舜臣이 水使로 있었던 당시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耳匠	46명	*火砲匠	45명
*沙工(船頭)	48명	*弓矢人(造弓匠)	37명
*漆匠	8명	* 銀匠(金·銀·細工製造)	2명
*扇子匠	26명	*木手(木工)	30명
*銚匠(葬送具·祭器製造)	3명	* 環刀匠	4명
*筒箇匠(竹箇細工)	24명	*刀子匠(小刀製造)	3명
*鎗器匠(貞鎗器具製造)	1명	*朱錫匠(朱錫은 貞鎗의 일종) ...	1명
*竹席匠(竹皮의 敷物細工)	10명	*笠子匠	6명
*官木手	3명	*水鐵匠(銑鐵匠?)	37명
*沙鐵吹鍊匠	10명	*皮鐵匠(皮細工職人?)	3명
*磨造匠(갈·거울가는 사람?) ...	3명	*螺鈿匠	2명
*蓋匠(지붕 잇는 직인)	2명	*瓦匠(瓦職人)	6명

한 번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 職人은 水營에 필요한 軍需物資를 중심으로 한 물품들의 제조에 종사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水使直屬의 군관에 편성되어, 수군의 수요에 응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란 때 조선 수군이 눈부신 활약을 전개했던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이들 職人이며, 『亂世日記』의 이곳 저곳에서 이들 민중의 존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III. 假倭로 변장한 亂民

壬辰倭亂이라는 조선왕조 개국 이래 가장 국가적 위기였을 때, 전란의 혼란한 틈을 타서 放火·掠奪을恣行했던 亂民이 있다. 그 행동의 일례를 「亂中日記」 속에서 소개하자.

○八日庚申, 晴, 因南海往來人趙鵬, 聞賊犯光陽, 光陽之人, 已爲焚蕩官舍倉庫云, 不勝怪怪, 順天·光陽, 卽欲發送, 路云不可信, 停之, (蛇渡軍官金鵬萬, 探知次送之),

○九日辛酉, 晴, 南海又來傳云, 光陽·順天已爲焚蕩云, 故光陽·順天及宋希立·金得龍·鄭思立等, 發送李渫, 昨日先送, 聞來痛入骨髓, 不能措語, (中略)三更末, 營探候船入來, 云賊奇, 則非倭賊, 嶺南避亂之人, 仮著倭形, 突入光陽, 閣閤焚蕩云, 則不勝喜幸, 晉陽之事亦虛云, 然晉陽事, 萬無是理, 鷄已鳴矣,

○十日壬戌, 晴, 晚金鵬萬自豆耽(光陽郡多鵝面蟾津里)來言, 光陽之事實矣, 而但賊倭百餘名, 自陶灘越渡, 已犯光陽云, 然就觀所爲, 則銃筒一無度放之云, 倭而萬無不放炮之理矣, (以下, 略)

○十一日癸亥, 晴, (中略)蛇渡僉使(金浣)還來言內, 豆耽渡賊事虛傳, 而光陽之變著倭服, 自相作亂云, 順天·樂安已盡焚蕩云, 不勝痛憤憤, 夕吳壽成, 自光陽還來, 告曰, 光陽賊事, 皆晉州及縣人, 出此凶計, 官庫寂然, 閭里一空, 終日回觀, 無一人云, 順天尤甚, 而樂安次之云, (以下, 略)

이상, 열거한 사항은, 慶尙道 避難民이 倭賊으로 변장해서 光

陽에 돌입해 放火·掠奪을 자행하고 光陽人們 사이에도 이들 행위에 가담하는 자가 나왔다고 하는 사례이다. 전라도 관찰사 李廷蘡의 壯啓에 의하면, 요즈음 忠淸·慶尙·全羅三道에서는 하층민이 혼란한 틈을 타 약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 왜란에 의한 식량부족과 생활불안이 하층민을 그와 같은 경지로 몰고 갔던 것이다.

光陽의 亂民에 대해서 최초 李舜臣은 왜적이 侵犯했다는 보고를 들었으나, 그것이 조선 난민의 소행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하였으나 痛憤한 마음을 풀길 없는 심정에는 차이가 없었다. 「亂中日記」에는 조선인이 동포를 殺食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고(甲午2月9日), 왜란의 영향에 의한 조선 사회의 혼란을 낱낱이 볼 수가 있다.

IV. 「亂中日記」에서 보이는 降倭에 대해서

1. 降倭에 관한 記述

*1594(宣祖27)甲午年10月6日

「初六日,庚戌,晴,(中略)倭奴一名,來到漆川山麓,欲爲投降,故昆陽郡守招降載船,問之,則永登倭也。」

*1594(宣祖27)甲午年10月21日

「廿一日乙丑,晴而小陰,(中略)晚降倭三名,自元水使來,拵招。」

*1594(宣祖27)甲午年11月3日

「初三日,丁丑,晴,朝金天碩,指備邊司關,率降倭也。汝文(彌右衛門)等三名到陣。」

*1594(宣祖27)甲午年11月4日

「初四日戊寅,晴,出大廳,問降倭等事情」

*1594(宣祖27)甲午年11月5日

「初五日己卯,陰而細雨,(中略)巡邊使(李鎰),使其軍官押送降倭十三名」

*1594(宣祖27)甲午年11月7日

「初七日辛巳,晚晴,朝出大廳,降倭十七名,送于南海」

*1594(宣祖27)甲午年11月13日

「十三日丁亥,晴,風日殘溫,(中略)元帥使防禦使軍官,領降倭十四名而來」

*1594(宣祖27)甲午年11月14日

「十四戊子,晴,朝,右兵使(金應瑞)降倭七名,使其軍官領來,故卽送南海縣」

*1594(宣祖27)甲午年11月27日

「二十七日辛丑,晴,食後,出坐大廳,則左右道送降倭數來聚,故使之習放」

*1595(宣祖28)乙未年1月7日

「初七日庚辰,晴,(中略)南海降倭也汝文等來現」

*1595(宣祖28)乙未年1月9日

「初九日壬午,晴,食後也汝文等,還送南海」

*1595(宣祖28)乙未年1月17日

「十七日庚寅,雨勢似斂,(中略)晚右水使(李億祺)馳報,見乃梁伏兵處所來降倭沈安隱已招問,則渠是永登屯倭,而其將沈安頓(島津義弘)代其子(島津忠恒),近將入歸云云」

*1595(宣祖28)乙未年4月24日

「二十四日丙寅,晴,(中略)午時姜千石走來告,逃倭望己時老(孫四郎?)伏於茂草中,捕得一倭,投水死云,卽押來,三道分屬降倭,盡爲招集,卽令斬首,望己時老,少無難色就死,可謂悍矣」

*1595(宣祖28)乙未年5月21日

「二十一日癸巳,陰,(中略)朝出坐,則降倭等來告,其同類倭山素,多有兇悖之事斬殺云,故令倭斬之」

*1595(宣祖28)乙未年10月5日

「初五日甲辰,早朝上樓看役,而樓上外楹仰土,使降倭運役」

*1595(宣祖28)乙未年10月13日

「十三日壬子,晴,早上升新樓,大廳仰土,令降倭畢役」

*1595(宣祖28)乙未年11月1日

「十一月初一日己巳,曉行望闕禮,(中略)降倭等饋酒」

*1595(宣祖28)乙未年11月16日

「十六日甲申,晴,降倭汝文戀已·也時老(彌次郎)等,來告倭等欲逃,故令右虞候捉來,摘其首謀俊時等二倭斬之」

*1595(宣祖28)乙未年11月25日

「二十五日癸巳,晴,(中略)晚慶尙虞候來傳,降倭八名,自加德出來云,熊川(李雲龍)及右虞」

*1595(宣祖28)乙未年11月26日

「二十六日甲午,朝陰晚晴,(中略)午時慶尙水使來, 降倭八名及引來金卓等二名並來,故饋酒,金卓等則各給木棉一疋而送」

*1595(宣祖28)乙未年11月30日

「三十日戊戌,晴,南海降倭也汝文(彌右衛門)·信是老(信次郎)等來」

*1596(宣祖29)丙申年1月7日

「七日甲戌,晴,(中略)未時見乃梁伏兵將三千糧官馳報,則降倭五名,自厓山出來云,故使安骨浦萬戶禹壽·孔太元起送」

*1596(宣祖29)丙申年1月8日

「八日乙亥,晴,(中略)早降倭五名人來,故問其來由,則以其將性惡,役且煩重,逃來投降云,收其大小刀,藏之樓上,實非釜山倭也,乃加德沈安(島

津殿)屯所率云」

*1596(宣祖29)丙申年1月15

「十五日壬午,晴且溫,(中略)因饋降倭酒食」

*1596(宣祖29)丙申年2月15日

「二十五日壬子,(中略)昏間右道降倭,與慶倭同約,欲爲逃去之計云,故卽傳令通之」

*1596(宣祖29)丙申年2月19日

「十九日丙辰,晴(中略)時曉慶尙陣留在降倭,使此處倭亂〔南〕汝文等縛來斷頭」

*1596(宣祖29)丙申年4月16日

「十六日壬子,晴,朝食後出坐,招亂汝文(南右衛門)等,問衝火倭三名招致戮滅」

*1596(宣祖29)丙申年4月19日

「十九日乙卯,晴,(中略)是日,朝因南汝文,聞秀吉之死,忭躍不已,但未可信也,此言曾播,而尙未的奇之來」

*1596(宣祖29)丙申年4月29日

「二十九日乙丑,晴,(中略)降倭沙古汝音,令南汝文斬之」

*1596(宣祖29)丙申年6月24日

「二十四日,初伏,庚申,晴,(中略)降倭也汝文等請殺其類信是老云,故命殺之」

*1596(宣祖29)丙申年7月13日

「十三日戊寅,晴,(中略)昏降倭等多張優戲,爲將者不可坐視,而歸附之倭懇欲庭戲,故不禁也」

*1596(宣祖29)丙申年7月18日

「十八日癸未,晴,(中略)夕聞降倭戀隱己·沙耳汝文等凶謀欲害南汝文」

*1596(宣祖29)丙申年7月19日

「十九日甲申,晴而大風終日,南汝文斬戀己(戀隱己?)·沙耳汝文等」

*1597(宣祖30)丁酉年7月3日

「三日壬午, 晴,(中略)此時左兵使, 使其軍官押降倭二名而來, 乃清正所率云」

*1597(宣祖30)丙申年9月17日

「十六日甲辰, 晴,(中略)降倭俊沙者, 乃安骨浦賊陣投降者也, 在我船上; 俯視曰, 着畫文紅錦衣者, 乃安骨陣賊將馬多時(來島通總?)也, 吾使無上金匱孫要鉋釣上船頭, 則俊沙踴躍曰, 是馬多時云, 故卽令寸斬」

2. 『亂中日記』의 降倭記述에서 말할 수 있는 것.

1) 降倭발생의 결정시기

이상, 「亂中日記」에서 보여진 降倭의 사례를 소개 했는데, 이를 통해 降倭가 결정적으로 많이 발생한 시기는 1595년(宣祖28)부터 1596년(선조29)이었다. 이 시기는 일본과 明이 講和交涉을 했던 시기이며, 일본군은 조선의 남쪽연안에倭城을 쌓고서 장기적으로 주둔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2) 降倭는 어디서부터 도망쳐 왔는가

그러면 「亂中日記」에서 보이는 降倭는 어디서부터 도망쳐 왔는가. 永登浦(甲午10月6日,乙未3月17日), 加德島(乙未11月25日,丙申1月8日), 釜山(丙申1月7日)등에서 도망쳐온 사례도 있으나, 주목할 것은 慶尚道黃石山城 加藤清正의 진영으로부터 降倭가 있었다는 것이다(丁酉7月3日). 당시 清正是 慶尚道黃石山城을 공략하려 했던 때이고 (「朝鮮王朝宣祖實錄」宣祖30年9月戊子), 黃石城은 慶尚道居昌에서 全羅道全州로 통하는 要衝地였다. 여기서 도

망친 降倭가 慶尙左兵使成允文에게 왔으며 그들이 李舜臣 밑으로 보내진 것이다.

3) 降倭가 되는 계기

왜병이 항왜가 되는 계기는 城을 쌓는 공사 등 힘든 노역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본 島津氏 가신의 경우가 그렇다(丙申1月8日). 이때 島津氏의 兵力은 加德島에 駐屯하고 있었지만, 島津義弘은 島津領國의 太閤檢地(토지조사)후의 知行(領地)분할 문제로 귀국 했었고, 島津兵力의 總大將은 島津又八郎忠恒(후에 家久로 고침) 였다. 이곳에서 島津氏는 蹤鞠(옛 귀족들의 공차기 놀이)장소나 다실을 諸大名들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秀吉로부터 虎狩의 습이 내려지자, 가신들은 범사냥에 여념이 없었다. (「高麗入日記」「薩藩舊記雜錄」33,35.北島萬次『朝鮮日々記・高麗日記-秀吉의 朝鮮침략과 그 역사적 고발-』そして 265頁이하).

4) 어떠한 降倭가 있었는지.....降倭의 類型

그런데, 일괄적으로 降倭라 해도, 여러 종류의 降倭가 있었는데, 조선 수군에 협력자가 된 자, 降倭라 해도 의연하게 도망치거나 반항한 자, 이렇게 둘로 大別 할 수가 있다.

① 조선 수군에의 협력자

조선 수군에 협력한 자로서는, 降倭내부의 움직임을 李舜臣에게 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들 수 있다. 『亂中日記』乙未11月16일의 기사에 있는 것처럼, 降倭인 汝文懲과 也時老(彌次郎)가 降

倭중에서 도망 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해, 李舜臣은 그 주모자 두 사람을 처형하고 있다. 또한 『亂中日記』丙申4月16일 기사에 의하면 降倭 중에는 放火한 자도 있고, 李舜臣은 이에 대해 降倭 亂汝文(南右衛門)으로부터 그 범인을 알아내서 처형하고 있다.

그런데 降倭의 처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亂中日記』乙未5月21일 기사에 의하면, 「川素」라는 降倭가 교활하기 때문에 그를 斬殺하고 싶다는 다른 降倭들이 李舜臣에게 청원을 했다. 그래서 李舜臣은 降倭들에게 「川素」를 처형시키라고 했다. 이 경우 그 「교활」하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이처럼 降倭에게 동료 降倭를 처형시키는 사례는 『亂中日記』의 丙申2月19일 · 4월 29일 · 6월 24일의 기사에도 보인다.

② 도망, 반항 또는 협력자에게 린치를企圖한 자

이처럼 降倭에 의한 降倭의 처형 배경에는 降倭의 逃亡과 反抗이 있다. 『亂中日記』乙未4月24일에 도망간 降倭를 수군의 협력자가 된 降倭孫四郎이 체포했다는 기사가 있다. 『亂中日記』乙未 11月16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했다.

다음으로 「亂中日記」丙申2月15일의記事에는, 慶尙右道의 降倭가 慶尙道의 倭賊과 연락해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는 것이 보인다. 여기서 상기되는 것은, 1593년(宣祖26)年7月, 降倭라고 속이고서 투항한 倭兵이 大邱에서 明의 副總兵 李寧에게 달려들었으나 오히려 살해되었다고 하는 사건이다. (『朝鮮王朝實錄』宣祖26年7月丁巳). 여기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降倭가 되어投降했어도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서 의식적으로 투항한 자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降倭사이에서 사형이 있었다는 것이 『亂中日記』丙時7

月18日과 19일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戀隱己」 및 「沙耳汝文」이라는 이름의降倭가 水軍의 協力者가 된 南右文(南右衛門)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李舜臣은 南右文(南右衛門)에게 명하여 이 두 사람을 斬하게 하였다. 이처럼 降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을 보는 것이다.

5) 降倭의 利用

「亂中日記」는 降倭의 이용에 대해서도 적혀 있다. 降倭에게 砲術을 배우게 한記事가 있으며(「亂中日記」甲午11月27日), 이들은 水軍의 砲手로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亂中日記」乙未10月5日·13일에 보이는 것처럼, 降倭는 壁土를 바르는 勞役이 부과되었고, 이런 점에서 降倭에게 토목공사의 노역도 부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亂中日記』甲午11月7일·14일의 「降倭를 南海로 보냈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것은 아마 格軍(水夫)으로서 부리려고 했던 것일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才技가 있어서 공순한 태도를 취하고 國用에 도움이 되는 降倭는 隊中에 두고, 그 외의 降倭는 한산도의 수군으로 보내 格軍으로서 이용하려고 했던 점도 분명하다. (「朝鮮王朝宣祖實錄」宣祖27年9月己丑). 그리고 「國用에 도움이 되는 降倭」라는 것은 전투할 때의 이용을 들 수가 있다. 丁酉9月17일의 명량해전 때倭將來島通總을 지명한 降倭俊士의 경우가 그렇다.

3. 「降倭」라 불려진倭人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조선을 服屬시키고, 明을 정복해서 동아

시아 세계에 군림할 야망을 품었던 豊臣秀吉, 그가 일으킨 倭亂은 많은 사람을 전쟁 속으로 몰고 갔다. 「降倭」라 불려진 倭人도 그 하나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오랜 전쟁에 의한 兵糧不足과 厥戰분위기로 降倭가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秀吉의 해외 파병에 의문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조선측에 투항한 자도 있다.

「亂中日記」에는 그 降倭의 실태를 낱낱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수군의 진영에서 도망치려 했던 降倭의 경우, 처음에는 고된 축성공사등 왜장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대개 조선 측에 투항했던 것이나, 降倭에 익숙하지 않자 다시 도망쳤던 것이다. 여기서 왜란에 동원된 하급왜병의 동요를 보는 것이다.

V. 「亂中日記」原本의 날짜착오와 명량해전에 대해서

「亂中日記」(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編『朝鮮史料叢刊第六, 亂中日記草・壬辰壯草』)를 상세하게 읽으면, 丁酉8月末日과 9月 전체에 날짜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8月末日의 날짜는 「三十日戊子」로 되어 있고, 9月1일은 「九月初一日己丑」으로 되어 있다(267頁). 이것은 「忠武公全集」에 있는「亂中日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亂中日記」의 원본과 대조해 보면, 第5冊日(標題「丁酉日記」)의 8月末日의 날짜는 「卅日戊寅(「戊子」의 잘못)으로 되어 있고, 第6冊日(標題 缺<影印本은 「戊戌」로 적혀있다>)의 8月末日의 날짜는 「三十日戊子」로 되어 있다. 第5冊日과 第6冊日 모두 8月30日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册曆(明曆=朝鮮曆)8月은 小月였으며, 「亂中日記」의 「八月三十日戊子」는 「九月一日戊子」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 「朝鮮王朝宣祖實錄」과 대비해서 보

면 宣祖30年丁酉8月末日은 「丁亥」이며, 9月1日은 「戊子」이다. 따라서 「亂中日記」의 9月기사는 하루씩 밀려야 된다. 더욱이 9月은 大月이므로, 원본의 9月29日은 30日이며, 10月1日부터의 날짜는 맞는 것이 된다. 이 「亂中日記」에 있어서 날짜의 오류는 李舜臣의 착각에 의한 것이다.

李舜臣은 「亂中日記」丁酉9月의 기술을 날짜 착오에 의해 적었기 때문에, 저명한 鳴梁海戰도 9月16日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명량해전은 9月17日이 바른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學說史는 무비판적으로 명량해전을 9月16日로서 踏襲해 왔다.

VI. 마치며

지금까지 「亂中日記」를 근거로 해서, 해전에서 李舜臣의 눈부신 활약과는 별도로, 「亂中日記」를 통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의 서민의 움직임을 보려고 노력했다. 李舜臣의 해전을 밑에서부터 지지했던 사람들, 왜란의 혼란을 틈타 僞倭가 되어 도적행위로 치우친 朝鮮의 下層民, 秀吉의 야망에 동원되어 降倭가 된倭人們의 삶, 이것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亂中日記」을 통해서 왜란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점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